



# 게임 파티 속에 “빠져~봅시다!”

## 카트라이더 · 프리스타일 등 유저 대상 랜 파티 ‘성황’

글 양기석 기자 · 사진 이해성 기자

카트라이더 · 프리스타일 등 국내 최고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 파티가 성황리에 개최됐다.

게임전문방송 온게임넷은 지난달 20일부터 21까지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게임파티 ‘e-ty summer 2005’를 개최했다. 이번 행사는 프리스타일 데이(20일)와 벡스 데이(21일)로 각각 열렸다.

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입장과 동시에 일정 파티머니를 받아 게임 대회 및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. 즉, 파티에 참여하는 유저들은 입장과 동시에 파티머니를 받아 파티 내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쿠폰 속에서 게임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. 아울러 게임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 존에서의 즉석 사진 촬영 및 캐릭터와 레이스 경의 코스튬 플레이 등도 함께 진행됐다.

20일에는 프리스타일 데일로 진행됐다. 참가를 원하는 게이머들이 3인 1조로 팀을 이뤄 총 300대의 PC가 설치된 장소에서 파란게임존, 조이시티존으로 각각 분리돼 경기에 참여했다. 제한 시간 내 많은 승수를 쌓은 팀이 본선에 진출,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렸고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. 특히 각 준의 결승전 후 파란게임존의 우승팀과 조이시티존의 우승팀이 친선경

기도 치뤄져 재미를 더했다.

또, 21일에 열린 ‘벡스 데이’에서는 국민게임인 카트라이더 대회가 ‘개인 스피드전’으로 진행됐다. 이 대회 역시 유저들과 함께 오프라인 상으로 게임을 즐기고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모은 선수 32명이 32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 특히 이 대회 결승전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우승 상금과 함께 2차 리그 진출 기회가 주어졌고, ‘코크플레이 배 카트라이더 리그’의 본선 진출자 십여명이 초청돼 시범 경기를 선보였다.

아울러 벡스 데이 행사장에서는 카트라이더뿐만 아니라 벡스의 신작 게임 ‘제라’의 대형 조형물(벡스-제라 타워)이 설치되고 ‘제라’의 게임 동영상도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. 🎮

### 게임 파티란?

일명 랜 파티라고도 한다. 랜 파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게임 문화의 하나로서 각 가정의 네트워크 사정이 열악했던 시절에 각자 컴퓨터와 먹을거리를 지참하고 랜이 설치된 장소에 모여 게임을 즐겼던 것이 시초. 현재는 전세계적인 게임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.